

Contents

September 2007 축산신문출판사(주) 2007년 9월 10일 발행

- 02 축산단신
- 04 기획특집
축산물브랜드육성및 홍보
- 06 전문가심층분석
2007년 4/4분기축산관측
- 08 소·농가담방
· 당너머 한우 · 이현복 농가
- 09 돼지·등급판정 우수농가담방
· 대우축산 · 송호섭 농가
- 10 축산식육상식
국내신수입산육류구별하기
- 11 소·돼지산지및도매시장가격동향
- 13 등급판정통계자료
8월중축산물등급판정 결과
- 18 업체탐방
양주축협을 찾아서
- 19 등급판정소식



표지사진 '하늘높고높은하늘'
구산결남지역본부부스출장소주인송동호씨

[중국] 미 돈육 한번에 2천톤 수입

중국이미국으로부터대규모 돼지고기 수입을 추진 중에 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한 수입회사는 연말 이전에 미국 스미스필드로부터 2천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키로했다는 것이다. 이는 단일 거래로는 최대 규모로 올해 돼지 질병 확산으로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8% 가량 늘어난 8천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은 최근 중국 내에서 번지고 있는 돼지 질병이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변종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이 변종은 PRRS에 비해 폐사율이 높아 자돈 폐사율이 50% 이상 나타나고 있어 지난해 중순까지 감염 2만7천마리, 폐사 6만8천마리, 살처분 17만7천마리로 각각 집계했다고 중국은 전했다. 그러나 외신과 중국 내 전문가들은 5억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중국에서 돼지 값이 60% 이상 폭등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것으로보고있다.

미국산 쇠고기 구입의향 없다 51.2%

한 조사기관이 발표한 여론조사결과 미국산 쇠고기 구입의향이 없다는 응답자가 절반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여론조사결

과에서 성인남녀 1천명 가운데 55.8%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겠다”고 답한 것과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리서치전문기관 ‘엠브레인’은 전국 10대 이상 남녀 4천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간 인터넷과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36.5%가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한적이없고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답한 데 이어 14.7%가 ‘앞으로도 구입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1.2%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및 검역 재개 이후 구입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핵심 구매층인 주부의 경우 ‘구입한 적이 없고 좀 더 지켜보겠다’와 ‘앞으로도 구입할 생각이 전혀 없다’에 응답한 비율이 54.3%, 학생이 57.6%로 타 집단 대비 부정적 견해가 더욱 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산 우수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점 9곳 선정

국내산 우수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업소가 선정됐다. (사)대한양돈협회에 따르면 소시모 인증 14개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인증점을 추천받은 결과 9개소가 접수해왔다는 것. 이에 따라 이들 추천업소에 대한 서류심사와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협회와 브랜드 경영체등으로 구성된심사팀을운영, 인

